

Klinger의 〈Sturm und Drang〉考

千 冀 泰

人文大 獨文學科

目 次

I. 序 言	IV. 〈Sturm und Drang〉의 成立
II. 名稱의 語義와 由來	V 作品의 梗概
III. Klinger의 周邊	VI 結 語

I

1776年 Weimar에서 發表되었던 Klinger의 戯曲 〈Sturm und Drang〉이 獨文學史上에서 啓蒙主義의 뒤를 이어받은 古典・浪漫的 時代로 다시 이어주는 時期의 名稱으로 使用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한 나라의 文學史에서 어느 個人의 作品名이 그대로 그 時代를 呼稱하는 이름으로 使用된다는 것은 極히 드문 일이다. 거기에는 應當의 理由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一般的으로, Sturm und Drang 運動의 主役中 Goethe, Lenz와 더불어 核心的 役割을 한 Klinger라는 人物과 〈Sturm und Drang〉이란 作品에 대해서는 別般 알려져 있지 않다. 그 좋은 例로서 獨文學을 專攻하는 學生들 中에도 間或의 獨文學史上에서 作家로서의 比重도 대단치 않은 사람의, 그것도 대단치 않은 凡作을 天才 時代라는 別稱까지 가진 이 重要한 時期의 이름으로 使用하고 있는나고 묻는 사람도 있어, 이 글은 이와 같은 疑問에 解答의 針마리를 주고져 하는데 있어 啓蒙的인 것이다.¹⁾

II

于先 Sturm und Drang이라는 名稱의 語義와 由來를 살펴보기로 한다. 一般的으로 獨文

1) Sturm und Drang時代의 重要性에 대해서는 時代와 學者에 따라 意見이 相異하다. 이 時期를 單純히 古典・浪漫時代의 準備過程으로서만 볼 때, Herder와 Goethe가 빠져나간 뒤의 나머지는 別般 意義가 없다는 推論이 나올 수도 있다. Deutsche National-Literatur 第79卷: Stürmer und Dranger 第一部 8面 參照, 이와 正反對의 見解가 英國學者 Roy Pascal에 依해서 提起되고 있다. Pascal은 Sturm und Drang期의 獨自의 性格과 重要性을 強調하면서, 이 時期가 單獨의 存在價値를 要求할만 하다고 主張한다. Roy Pascal: Der Sturm und Drang의 序文參照.

Klinger의 作品은 Reclam 文庫의 〈Schauspielführer〉(演劇便覽)에는 한 편도 收錄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絕對의 基準은 될 수 없다 할지라도 觀客의 受容度라는 側面에서 볼 때 어느 程度까지는 Klinger의 戯曲作家로서의 成功度를 말해 주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學史에서 通說이 되어 있는 Christoph Kaufmann의 提案에 依한, 原名 <Wirrwarr>에서 <Sturm und Drang>으로의 改稱說을 當時의 文獻을 통해서 한 번 追跡함으로써 그 眞僞를 確認하기로 한다.

나중에 <Sturm und Drang>의 成立過程을 말할 때 詳述하겠지만, Klinger는 <Sturm und Drang>이 쓰여지던 바로 그 해, 그 前年未부터 Weimar의 宮庭에 머물면서 幸運을 잡기 始作한 Goethe의 뒤를 쫓아, 같은 幸運에 대한 꿈에 부풀어 Gießen大學에서의 法學工夫를 中斷하고 6月 2日 Gießen을 떠나 같은 달 24日 Weimar에 到着하나, 每事가 如意치 않고 빌려 온 路資마저 다 떨어져 物心兩面으로 危機에 處하게 되자, 自己能力의 誇示와 金錢의 調達이란 두 가지의 目的을 겨냥해서 倉卒間에 <Sturm und Drang>을 創作한다. 그때의 狀況을 Klinger는 高달픈 客舍로부터 Gießen大學의 同學이면서 平生동안 變함없는 親舊인 Darmstadt의 Schleiermacher에게 편지를 통해서 소상히 알리고 있다. 이들 편지中에서 <Sturm und Drang>이란 名稱의 成立과 關聯되는 部分만을 紹介기로 한다.

Weimar 1776年 9月 4日

나는 지금 <뒤죽박죽>(der Wirrwarr)이라는 喜劇을 한 편 쓰고 있는 中인데, 곧 脫稿할 것일세, 이 속에 登場하는 Wild, Blasius 그리고 La Feu라는 者들은 자네 마을에 들 줄 알아, 나는 아주 멋진 奇人들을 한 곳에 동판 모았네. 뿐만 아니라 아주 深刻한 悲劇의 感情이 爆笑·哄笑와 繼續 交叉하게 되어 있어, 나는 이것을 Hamburg로 보낼 생각이다. [中略] Schroder氏가 新作의 悲劇을 한 편 달라고 부탁해 왔는데 萬若에 내가 쓴 이 <뒤죽박죽>의 代價로 20 Karolin만 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²⁾

이 편지를 읽고서 알 수 있는 것은 Klinger가 分明히 新作의 戲曲을 <뒤죽박죽> (der Wirrwarr)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點이다. 뿐만 아니라 當時까지만 하더라도 啓蒙主義의 支配下에서 佛國의 擬古主義의 橫倣 程度를 일삼아 場所, 時間, 줄거리 등의 三統一 法則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던 獨逸戲曲의 作法에서 부터 Shakespeare 流의 性格劇으로의 轉換을 意味하는 獨特한 性格의 人物들을 戲曲의 核心에다 놓고 있다는 點이다. 편지의 마지막 部分에서는 Goethe와는 對照의으로 恒常 貧困과 싸우지 않으면 안되었던 Klinger의 靑少年 時節의 斷面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외에도 文脈을 보아 本來는 喜劇을 쓸 생각이었으나 興行業者인 Schroder가 悲劇을 要請해 와 結局에 喜悲劇으로 끝을 맺은 印象도 우리는 빠뜨릴 수가 없다.

普通 이 戲曲을 Shakespeare의 <Romeo and Juliet>을 模倣한 것으로 말하지만, Lord Berkley와 Lord Bushy 兩家의 角逐이 兩家의 悲劇으로 물고가는 때까지는 플로트가 같으나, 結末에 가서는 서로의 誤解가 풀리고, 죽었다고 믿었던 사람이나 失蹤되었던 사람이 모

2) Friedrich Maximilian Klinger, Sturm und Drang. Schauspiel. Mit einem Anhang zur Entstehungs- und Wirkungsgeschichte. Herausgegeben von Jörg-Ulich Fechner. S. 75 Dokumente zur Entstehungs- und Wirkungsgeschichte에서 間接으로 引用.

두 살아서 돌아오고 兩家の 二世인 Berkley家の Koroline와 Bushy家の Wild(本名은 Karl)가 해피엔드(happy end)로 結合된다는 點에서 始作과는 달리 相當히 兩者間에는 距離가 있다고 생각된다.

本來 Klinger의 意圖한 바가 喜劇이었는데 Schröder의 要請이 悲劇이였기 때문에 作品이 完成되었을 때는 喜悲劇이 되었음을 다음의 편지에서 確認할 수가 있다.

Weimar 1776年 9月 12日

그리고 나는 戲曲을 한 편 썼는데, 아주 잘 됐어 자네도 읽고 즐길 수 있을 거야 아직도 完成은 안되었지만, Schröder氏가 뭘 자꾸만 달라기예, 이것으로 20 Louisdor 뭘 셈일세, 아직도 서너 場面 問題되는 때가 있어—— 그리고 나면 자넌 喜悲를 쓰더손 소스(Sauce)를 쳐서 맛보게 될 것일세³⁾

그런데 이렇게 Weimar에 머무는 동안에 Klinger와 Goethe의 사이가 틀어져 Klinger는 Weimar에 더 이상 머물 것을 斷念하고 Seyler 劇團의 專屬劇作家가 되어 Weimar을 떠나 各地를 巡廻하게 되는데, Dresden에서 다시 Schleiermacher에게 消息을 傳하고 있다.

Dresden 1776年 晩秋

다음 週에 나의 新作(Sturm und Drang)이 이 곳에서 上演되네, 자네의 굳어버린 荒涼한 心情에게는 平寂한 變遷이 될 거야⁴⁾.

여기서 우리의 注目을 끄는 것은 9月 4日字로 Weimar에서 보낸 편지에서는 新作의 戲曲 名을 分明히 (Wirrwarr)이라고 썼는데 Dresden에서 發信한 편지에는 (Sturm und Drang)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點이다. 얼마 後 같은 Dresden에서 年末에 보낸 편지를 다시 보면 거기에도 (Sturm und Drang)으로 되어 있다.

Dresden 1776年末

아마 어머니에게 보내드릴 돈과 함께 자네에게 (Sturm und Drang)을 보낼 것같애, 이것이야 말로 내 마음 속에서 쏟아져 나온 가장 暢達고 멋진 것이라 하겠네⁵⁾

위에서 본 편지의 記錄에서 우리들은 Klinger가 新作의 戲曲을 最初에는 (Wirrwarr)로 했다가 나중에 舞臺에 올릴 때는 (Sturm und Drang)으로 고쳤음을 알 수 있다.

當時의 慣例로 보아서 Klinger는 일단 完成된 原稿를 어떤 親知들의 모임에서 朗讀을 했을 것이다. 이 곳에 스위스의 Winterthuer에서 온 Kaufmann이 偶然히 參席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Klinger自身이 個人的으로 Kaufmann을 찾아가서 自己의 新作에 대한 評을 듣고 題目에 대한 推蔽까지도, 依賴했을 것이다.

Kaufmann의 文學에 대한 理解도가 어느 程度였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그의 反應은 作品自體에 대해서는 好感을 보였지만, 題目에 대해서는 異議를 提起하여 (Wirrwarr)에서

3) ibid., S. 75.

4) ibid., S. 75.

5) ibid., S. 75.

〈Sturm und Drang〉으로 改稱하도록 한 것 같다. 그런데 이와 같은 推則을 確認케 해 주는 唯一한 記錄은 Klinger自身이 Weimar을 마지막으로 떠난 후 오랜 積阻 끝에 Goethe에게 보낸 1814年 5月 26日字 편지이다. 이 편지에서 Klinger는 지난 날의 自身의 文筆活動에 言及하고서, Weimar 滯在時를 回顧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1814年 5月 26日

내가 당신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Weimar에서였습니다. 당신이 그 곳에 머물던 첫 번째 여름동안의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 때만 하더라도, 잊을 수 없는 大公母 Amalie의 주선으로 美國에서 軍隊生活를 始作할 希望에 부풀어 있었지요. 나는 그 때 무엇이든지 해야겠다는 衝動에 못이겨서 새 戲曲을 한 편 썼습니다. 그런데 Lavater에 依해서 傳道次 派遭되었던 「使徒」가 〈Sturm und Drang〉이란 呼稱을 억지로(mit Gewalt) 가져다 붙였지요. 그런데 나중에 많은 풀벌레 녀석들이 이 이름을 두고 아주 좋아 했지요.⁶⁾

이 편지에서 이름은 안 밝혔지만 Lavater의 使徒란 Kaufmann을 뜻하는 것임이 明白하다. Kaufmann은 Lavater의 弟子로서 當時 獨逸의 젊은 知性들을 뒤흔들어 놓았던 Rousseau의 自然主義 哲學에 心醉해서 수염도 깎지 않고 飲食도 牛乳와 菜食만을 하고, 일체 술은 파하지않는 奇人이었다. 最初에는 Sturm und Drang 運動의 主役을 맡던 靑年들로부터 尊敬과 讚辭를 받았으나 나중에는 야바위꾼 取扱을 받고 조소를 받았다.⁷⁾

이것으로써 本來 Klinger自身에 依해서 〈Wirrwarr〉로 定해졌던 것이 어떻게 해서 現在의 〈Sturm und Drang〉으로 改稱되었나 하는 것을 Klinger의 書信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럼 다음으로는 〈Wirrwarr〉이나 〈Sturm und Drang〉의 뜻과 그 出處를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筆者는 〈Wirrwarr〉와 韻을 맞추기 위해서 〈뒤죽박죽〉으로 옮겼다. 다른 表現을 使用한다면 〈混亂〉, 〈紛糾〉이 되겠는데, 이 混亂과 紛糾는 이 戲曲의 즐거리에서 Berkley家와 Bushy家의 葛藤을 象徵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同時에 이 作品 成立 當時의 Klinger의 精神的 狀況을 暗示해 주는 뜻도 包含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Klinger는 心理적으로 볼 때 Lenz처럼 復雜한 性格의 所有者는 아니었다. 그러나 學業을 中斷하고, 作家, 軍人, 演劇人等 莫然한 職業選擇의 歧路上에 놓여 있었다는 點에서, 그 때의 精神狀態는 뒤죽박죽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Wirrwarr〉이란 單字의 使用도 Klinger의 獨創性에 依한 것보다는 當時의 流行을 좇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當時 流行하던 r-a 型의 小兒用語에 Singsang, Bimbam, Piffpaff 등이 있었는데, Wirrwarr도 여기에 準해서 처음으로 使用되었던 單字라고 한다.⁸⁾

6) ibid., S 77.

7) Christoph Kaufmann에 대해서는 Geschichte der deutschen Literatur von Helmut de Boor und Richard Newald 6 S 202-204 參照

8) 註2) 參考文獻의 Nachwort S. 161

그럼 Kaufmann이 改稱케 한 <Sturm und Drang>은 어디서 왔을까 한 번 생각해 보고져 한다. Kaufmann에 依한 創作이었을까 或은 어디서 빌려온 것일까? 當時 Sturm und Drang 運動의 主役들 사이에 번져있던 Shakespeare 崇拜熱로 보아 Shakespeare의 喜劇 <The Tempest>를 생각하게 되는데 <The Tempest>의 內容과 <Sturm und Drang>의 內容 사이에는 너무도 距離가 있어, 거기서 따온 것 같지는 생각되지 않는다.⁹⁾

當時 Sturm und Drang 運動의 主役中の 다른 한 사람이었던 Wagner는 Seyler劇團의 演劇評을 맡아 썼는데, 그 11번째의 評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지난 土曜日 <Sturm und Drang>이 豫告되자 거의 모든 사람이 묻기로 「그 作品의 이름이 무어냐?」고——[中略] 무슨 暴風같은 것이 그 作品 속에 나타나는지, 或은 그렇지 않으면 Shakespeare의 暴風 <The Tempest>이란 말인가? 아니야, Klinger는 Shakespeare를 너무나도 尊敬하기 때문에 그에게 그렇게 모독적인 罪는 짓지 않을거야.¹⁰⁾

이 글을 보아서도 同時代의 사람들이 얼마나 Shakespeare를 높이 評價했나를 알 수 있으며, 더러는 <Sturm und Drang>을 Shakespeare의 <The Tempest>와 關聯지어서 생각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實際로는 아무런 相關이 없음을 알 수 있다.

筆者는 現代에 와서는 絶對로 上演도 안될 뿐더러 거의 읽히지도 않는 이 作品을 綿密히 檢討한 結果 「Sturm und Drang」이란 낱말은 當時의 青年들이 즐겨 使用했던 낱말들 中の 한가지로서, Klinger가 臺詞 속에서 군데군데 使用한 것을 Kaufmann이 짝을 지어서 作品의 題目으로 권유한 것으로 結論을 내렸다. 以下에서는 實際로 作品 속에서 「Sturm」과 「Drang」이란 낱말이 使用된 곳을 살펴 보고 筆者의 結論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첫째 一幕 一場에서 開幕 劈頭에 Wild의 臺詞를 보면,

Heyda! nun einmal in Tumult und Lermen, daß die Sinnen herumfahren wie Dach-Fahnen beym *Sturm*. Das wilde Gerausch hat mir schon so viel Wohlseyn entgegen gebrüllt, daß mir's würklich ein wenig anfangt besser zu werden. So viel Hundert Meilen gereiset um dich in vergessenden Lermen zu bringen—Tolles Herz! du sollst mirs danken! Ha! tobe und spanne dich dann aus, labe dich im *Wirrwarr!*¹¹⁾

以上 引用된 臺詞 속에서 우리는 分明히 <Sturm und Drang>의 前半인 「Sturm」字와 本來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Wirrwarr」을 發見한다. 나머지 「Drang」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Sturm」이 一幕 一場에서 發見될 수 있었던 것과는 對照的으로 「Drang」은 五幕 十二場에서 나타나는데, 그 原文을 引用해 보기로 한다. 이것은 Berkley 卿의 臺詞다.

9) *ibid.*, S. 78.

10) *ibid.*, S. 78.

11) *ibid.*, S. 5.

Nur diese Gnade, lieber Himmel! daß ich dieses Kind vergesse! aus diesem verworrenen *Drang* komme!¹²⁾

여기서 다시 注目을 끄는 것은 「Drang」이란 낱말이 「Wirrwarr」과 語源을 같이 하는 「verworrenen」과 連結되어 使用되고 있다는 點과 이미 指摘한 五幕 十二場이라는 것이 最終幕의 最終場이라는 點이다. 다시 말해서 <Sturm und Drang>은 題目 그대로 「Sturm」에서 幕이 올라 「Drang」으로 幕이 내리는 셈이다. 그러므로 <Sturm und Drang>의 名稱은 앞에서 引用한 Klinger의 편지 內容에서 確認한 바와 같이 Kaufmann의 권유에 依해서 改稱된 結果지만, 名稱 自體는 Kaufmann의 考案에 依한 것이 아니라, 作品의 內部에서, 다시 말해서 作品의 始初와 終末에서 따온 것이라고 봐야 옳을 것이다. 勿論 이 외에도 作品의 到處에 「Sturm」과 「Wirrwarr」의 類似語를 發見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일이 指摘 않기로 한다.

III

獨逸文學史에서는 啓蒙主義時代와 古典主義時代사이에 끼여 있는 時期를 莫然히 天才時代(Geniezeit)라고도 부르고 風濤期(Sturm und Drang)라고도 한다. 그러나 風濤期는 嚴密히 規定할 때 1770年代의 中間에 位置한 所謂 天才時代의 絶頂期만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¹³⁾

Klinger는 이 天才時代의 絶頂期에 自己 周邊의 사람들로부터 「獅子피를 마시는 者」(Löwenblutsaufer)¹⁴⁾라는 別名으로 불리웠는데, 이 別名은 가까운 친구들로부터는 그의 뛰어난 外貌와 男性的인 豪放한 性格을 稱讚하는 뜻에서 使用되었고, 그의 敵으로부터는 분수를 모르고 덤비는 놈이라는 蔑視의 뜻으로 使用되었다. 그러나 讚蔑 兩端間에 그에게 붙여졌던 이와 같은 別名은 當時의 그의 誇張된 言行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이 獅子와 같은 사나이 Friedrich Maximilian Klinger는 18世紀 後半期에 있어서 政治的 後進性에 허덕이면서도 社會적으로 上昇하려는 獨逸 市民階級에 대한 象徴的 存在였었다.¹⁵⁾

Klinger는 1752年 2月 17日 自由市 Frankfurt am Main에서 軍人의 家庭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Goethe보다는 約 二年 半쯤 늦게 난 셈이다. 비록 2살半 程度의 差로 같은 Frankfurt에서 태어났지만, Goethe는 獨逸皇帝의 樞密顧問官의 아들이요, Klinger는 一個 가난한 兵卒의 아들이었기에 두 사람은 少年時節에는 사귄 機會가 없었던 것 같다. 더군다나

12) *ibid.*, S. 72.

13) Ferdinand J. Schneider: Die deutsche Dichtung der Geniezeit S. 1.

14) 이 別名은 Wieland가 부쳤다. Deutsche National-Literatur, Sturm und Drang, 1. Teil Klinger 篇 Einleitung 參照 S. V

15) Vgl. Hrsg. v. Jorg-Ulrich Fechner, Sturm und Drang Nachwort, S. 149~150.

Goethe는 公立學校에 다니지를 안았기 때문에 兩人의 接觸機會는 한층 더 稀薄했을 것으로 推測된다. Goethe가 自己와 Klinger는 같은 分지방을 달고서 이 世上에 태어났다고 한 것은 象徴的인 뜻으로 받아드려야 할 것이다.

Klinger는 8歲 때 아버지를 여의므로써 經濟的으로 더욱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 當時의 市所屬軍人이란 市民階級에서도 最下層에 屬해 있었다. 軍인이 되기 前에는 한 때 어느 貴族家門의 사냥군 노릇도 한 적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Klinger는 오늘날의 表現을 빌린다면 無產者의 아들로 태어났던 것이다. 그 때의 Frankfurt市는 비록 獨逸帝國의 直轄自由市였지만 諸身分 相互間의 位階秩序가 嚴格하였다. Goethe 家門의 例만 들어도, Goethe의 아버지가 獨逸皇帝의 樞密顧問官(이 官職은 事實은 돈을 주고 산 것이었다)이란 相當히 높은 벼슬을 하고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Frankfurt의 市民層속에서 二等級 程度밖에 되지 못했다. 이 等級制는 夜間外出時 초롱 속에 밝힐 수 있는 촛불의 數로써 嚴格히 定해져 있었다. 當時만 하더라도 街燈이 없을 때라, 市民들은 밤에 나들이를 할 때는 꼭 동불을 들고 다녀야만 했다. 貴族家門의 경우는 촛불을 세 개 켜고 다닐 수 있었고, 바로 그 밑에 屬하는 中間層은 두 개, 끝으로 普通의 Meister의 경우는 한 개로 되어 있고, 나머지 庶民들은 남의 동불 곁에 붙어서 夜間外出을 하던지, 아니면 아예 끄짝도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¹⁶⁾

이와 같은 時代的·社會的 狀況 속에서, 最下層의 家庭에서 태어났던 Klinger가 不撓不屈의 精神으로 모든 難關을 뚫고 貴族名門의 出身 못지않게 後日에 將軍과 大學管理의 總責任者의 地位에까지 올랐다는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악착같이 上昇하려는 市民階級の 象徴이 되기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Klinger는 父親과 死別한 後론 집안에서 唯一한 男子였기 때문에 그에게 지워진 責任은 莫重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해서 Klinger는 當時 그와 같이 文人으로서의 길을 擇한 同僚들 중에서 가장 社會的, 經濟的, 教育的 與件이 나쁜 셈이었다. 再娶로 들어와서 젊은 나이에 寡婦가 된 어머니는 Klinger의 性格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勇氣와 決斷力이 있는 女子였다. Klinger의 性格은 이 어머니의 性格에 아버지의 烈火 같은 性格이 合쳐진 것으로 짐작된다.¹⁷⁾ Klinger의 어머니는 男便의 죽음을 슬피할 겨를도 없이 어린 세 子女(Klinger는 女동생이 둘이었다)를 扶養하기 爲해서 남의집 洗濯婦가 되어 품팔이를 하는 한편, 동시에 구멍가게를 내어서 한 푼 두 푼의 장사를 하였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Klinger가 回想하고 있듯이 負債를 免할 길이 없었다고 한다. Klinger는 이런 조달됨 속에서도 學齡期에 到達하자 라틴語學校에 入學시켜달라고 어머니를 조른다. 어머니는 아들의 所願을

16) Derek van Abbé: Goethe, S. 20.

17) Richard Benz: Die Zeit der deutschen Klassik, S. 410-416.

Roy Pascal: Der Sturm und Drang, S. 49-51. Emil Ermatinger: Deutsche Dichter 1750~1900 S 239-243

들어주기 爲해서 첫번째 公納金을 빌려서 내기까지 했다. 何如間 正常的으로는 不可能했으리라 믿어지는데, 이런 가난 속에서도 偶然한 幸運으로 Klinger는 Frankfurt의 高等學校에 入學하게 된다. 그는 授業料의 免除를 받는 條件으로 學校의 暖房施設을 돌본다던가 其他 雜務를 맡아 하고, 美聲도 아닌데도 極貧兒童들을 後援하기 爲해서 만들어진 慈善 聖歌合唱隊에 끼어서 求乞을 하면서 學費를 마련했고, 後日 大學에서 修學키 爲한 學資金도 捰捰이 食費를 節約해서 貯蓄을 한 것 같다. 이와 같은 그의 피나는 努力은 그와 거의 비슷한 處地에서 孤軍奮鬪하던 Lenz에게 막 成年의 문턱에 到達한 그가 숨김없이 소상히 적어 보낸 편지 속에 記錄으로 남아 있다. 이와 같은 事實은 同情相憐格으로 Klinger가 自身の 어려움을 그와 같은 困境에 處해 있는 Lenz에게 하소연함으로써 自身の 精神的 苦痛을 덜려는 생각과, 그에게 自身の 信賴度를 間接的으로 表明한 것으로 看做된다. 이 記錄은 편지의 受取人인 Lenz가 Stein 夫人에게 보낼 생각으로 만든 寫本에 一部分이 남아있을 뿐이다¹⁸⁾

1772年 가을에 Klinger는 Frankfurt의 高等學校를 卒業하고 大學進學의 準備를 서둘지만 前述한 바와 같이 家族을 扶養할 義務때문에 진작 뜻을 이루지 못하고 結局 二年間을 Frankfurt에 있어서 기다려야만 했다. 마침내 1774年 4月 16日 그는 Gießen大學에 法學科 學生으로 登錄을 마치게 된다. 그러나 이 2年間은 大學入學이란 目的에서 볼때는 時間的 損失이 였지만, 그가 Sturm und Drang의 運動圈에 들어선 것이 바로 이 時期였다는 點에서 오히려 轉禍爲福의 感마저 없지않다. Klinger가 Goethe를 가까이 알고, 또 Goethe 周邊의 친구들과 사귀게 된 것은 바로 이 2年間의 일로 推定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Klinger는 當時 Frankfurt를 거처가던 많은 名士들과도 面識을 갖게 되는데 이것도 亦是 Goethe의 德澤이 였다. 그뿐만 아니라 Gießen에서도 Höpfner 教授宅에 無料로 宿所의 便宜를 提供받게 되는데, 이것도 Goethe가 當時 그들의 同人誌였던 Frankfurter Gelehrten Anzeigen의 同人이 였던 Höpfner教授를 Klinger에게 紹介한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Goethe는 또 Klinger의 學資 調達에 도움을 주기 爲해서 自身の 原稿를 出版業者에게 賣渡할 權利를 Klinger에게 넘겨 주기도 하였다. 勿論 그것이 實際로 얼마나 Klinger에게 도움을 주었는지는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다.

上述한 바와 같이 Klinger가 法律工夫를 Gießen大學에서 始作했었다는 事實은 確實하나 어느 程度까지 實際로 法律工夫에 熱中을 했던지는 未詳이다. Klinger처럼 法律工夫를 專攻으로 하면서도, 一般 法律學에는 沒頭하지 않고 其他 文學이나 다른 學問에 熱을 올렸던 Goethe와 비슷했으리라 믿어지는데, 두 사람 모두가 Sturm und Drang 運動의 主役이 되었다는 點에서 우리들의 興味를 끄는 바가 있다. Gießen 大學을 Klinger가 擇한 것은 Gießen이 Frankfurt에서 咫尺之間에 놓여 있다는 點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當時 獨逸大學들

18) Goethe-Jahrbuch IX, 1888, S. 10.

中에서도 學風이 거칠기로 有名한 Gießen大學이 그의 性格과 符合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如何間 保存된 資料에 依하면 그는 法律工夫보다는, 앞서 Goethe와 比較된 것같이, 文學工夫에 熱을 올렸다는 事實이 밝혀져 있다. 그리고 Gießen에서 있었던 일 중에서 特記할 만한 일은 이미 二章에서 言及된 바 있는 Darmstadt 出身의 學友 Ernst Schleiermacher를 平生의 變함없는 親舊로 사귀었다는 것이다. 意外로 學窓時節에 그가 썼던 편지들 속에는 學業에 대한 言及은 一言半句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反해 첫 戀愛經驗에 대한 報告가 많이 散在하고 있다.¹⁹⁾ 그의 後日 作品인 <Sturm und Drang>의 內容을 豫告나 行듯이 그는 數 많은 자갈구질한 戀愛沙汰에 關係를 한 것같다. 이 편지들 속에 나타나있는 Klinger는 一般의으로 알려져 있듯이 그의 生活과 天賦의 才質이 잘 調和된 衷裏一致한 人間으로서가 아니라, 自己周邊에 있는 사람들을 自身의 出世나 榮達을 爲해서나 또는 自己自身の 身分보다는 높은 階層 속에 끼어들어서 認定을 받기 爲한 自己宣傳을 하는데 利用한 俗된 人間으로서의 印象이 짙다. 特히 위에서 잠깐 비친 바 있지만, 女子關係에 있어서는 無責任한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 典型的인 例가 Albertine von Grun과의 關係다.

1776年 Klinger의 大學生活이 5學期째로 접어들 무렵에는 그는 아직도 젊은 나이에 相當한 著名의 劇作家가 되어 있었다. 一年前인 1775年 봄에 Hamburg에서 女俳優 Ackermann이 創作戯曲 한편을 懸賞募集하였다. Klinger는 <Die Zwillinge> (雙生兒)로 이 懸賞에 應募하여, 最終選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의 Sturm und Drang의 主役이었던 Leisewitz의 <Julius von Tarent>를 물러치고 堂堂히 入賞했었던 것이다. 當時 Klinger는 Goethe를 中心으로 한 所謂 天才의 青年들과 벌써 密接한 關係를 맺고 있었다. 그 中の 한 사람인 Johann M. Miller가 그에게 Florenz의 君主 Cosimo 一世의 두 아들의 沒落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줌으로써, 그것이 이 新作의 素材가 되었던 것이다. 懸賞金은 100 Taler가 걸려 있었는데 Klinger가 겨냥한 것은 이 懸賞金뿐만 아니라, 이 新作이 直時로 舞臺에 上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었다. 그는 自己의 野心을 이 한 편에 실은 셈이었다. 이런 까닭으로 그는 이 新作의 舞臺的 效果面에 力點을 두었다. 그 結果<Die Zwillinge>는 1776年 2月 23日 Hamburg에서 앞서 言及한 女俳優 Ackermann의 아들 Friedrich L. Schröder에 依해서 舞臺위에 올려져 Goethe의 <Götz>가 이룩하지 못한 大成功을 거두었다. 그에게 이와 같은 大成功의 실마리를 提供했던 Miller 外에도 Göttinger Kreis에 屬했던 Stolberg 伯爵, Zürich의 音樂家 Philip Kayser, 그리고 宗教的 Sturm und Drang의 旗手로 南方의 魔人으로서 불리었던 Lavater 等도 그가 當時 사귀었던 主要한 人物들이다.

이쯤 되고 보니 그가 大學工夫에 싫증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은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니다. 설사 그가 大學에서 法學工夫를 끝냈다 하더라도 當時의 社會構造下에서는 將來가 變함 것이었기 때문이다. Werther의 슬픔은 다름 아닌 市民階級の 職業의 限界에 대한 슬픔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當時의 Klinger의 편지들을 통해서는 왜 그가 그런決心을 하게 되었으며, 또 어떤希望이나 무슨期待를 갖고서 그렇게 했던지는 알 길이 없으나, Klinger는 Gießen을 떠나 Weimar의 Goethe에게로 向한다. 그는 그 해 復活節에 故鄉인 Frankfurt에서 Goethe와 再會할 것을 期待하고 있었으나 그 所願은 이루어지지 안했던 것이다. 그는 直接 Weimar까지 Goethe를 만나러 갈決心을 하였던 것이다. 그럼 이와 같은 그의 갑작스러운 行動의 背後에는 무슨 理由가 作用을 했을까 한 번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 번째 理由로 생각할 수 있는 點은 Klinger가 寄宿하고 있던 집主人인 Höpfner 教授와의 不和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Klinger는 Goethe의 紹介로 Höpfner 教授宅에 宿所를 無料로 提供받는데, Höpfner 教授의 편에서 볼 때 法學徒가 法律工夫는 着實히 하지않고 갑자기 劇作家로서 有名해졌다는 點도 決코 유쾌한 일은 못 되었으리라 믿어지나, 이것만이 直接的인 原因으로 作用한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問題는 두 사람의 世代差異와 性格의 異和感에서 온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妥當할 것 같다. Höpfner 教授에게는 Klinger의 天才然하는 態度가 몹시 못마땅했고 거꾸로 Klinger에게는 自身과, 또 自身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外에는 모두 개떡(Hundsfutter)같이 깔보는 Höpfner 教授의 傲慢한 姿勢에 견딜수가 없었던 것이다. 自尊心과 獨立心이 남달리 強했던 Klinger로서는 Höpfner 教授宅에 繼續 恩惠를 입고 머무는 것은 屈辱으로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여기에다가 앞서 잠깐 비친 바와 같이 大學을 卒業한 後 限定된 市民社會의 담당한 秩序 속에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不快感과 不安感도, 어려운 經濟條件下에서의 法律工夫를 포기케 한 重要한 動機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理由들은 消極的인 理由들이라 할 수 있겠고 차라리 積極的인 理由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當時 Goethe가 Weimar의 宮中으로 招請되어 들어간 事件은 階層(身分)相互間에 두터운 壁이 가로놓여 있던 點을 감안할 때 破格的인 일로서, 市民의 아들이 市民社會의 비좁은 틀을 깨고 나간 事件으로 特記될 수 있는 일이었다. 따라서 當時의 所謂 天才青年들에게는 Goethe야 말로 羨望의 標的이 아닐 수 없었다. 그들은 自己들도 한 번 Goethe의 뒤를 좇아 Weimar 宮中으로 들어가서 그를 中心으로 天才들의 「自由市」를 만들어 보자는 꿈을 품었던 것이다.

Sturm und Drang 運動의 主役中 Klinger와 여러 가지 面에서 좋은 對照를 이루고 있는 Lenz도 Klinger보다 한발 앞서 Weimar로 向하고 있었다. Klinger 亦是 〈雙生兒〉의 賞金으로 값을 생각으로 빚돈을 마련해서 不確實한 未知의 世界로 冒險길을 떠났던 것이다.

Klinger는 그 해 6月 24日 Weimar에 到着해서 Goethe를 爲始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迎接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잠깐 다녀갈 손님에 대한 歡迎이었고, 時間이 흐름에 따라 自己의 품었던 꿈이 誤算이었음이 判明된다. 周邊의 視線은 나날이 차가워져갔다. 거기에는 그만한 理由가 있었다.

Goethe는 Weimar 宮中에 들어온 後, 이곳의 生活에 물들기 爲해서 온갖 努力을 다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은 일단 모든 過去와 絶緣하는 일이었다. 그는 Weimar로 들어간 後 故 鄉집을 意識的으로 멀리하고 하나 밖에 없던 女동생과 그 男便에 대해서도 차거운 態度를 보였다.¹⁹⁾

따라서 옛 친구들이 그의 周邊에 모인다는 것은 自身이 다시 過去속으로 끌려 들어간다는 두려움에서 그렇게 반가운 일은 못 되었던 것이다.

그가 Straßburg 時代부터 Frankfurt 時代에 걸쳐 가장 가깝게 사귀었던 Lenz와 Klinger와도 訣別한다는 悲劇을 招來한 것도 Goethe 自身の 이와 같은 事情에 依해서 이루어진 셈이다. 그러나 Goethe 亦是 Lenz나 Klinger가 꿈꾸었던 天才들의 「植民地」를 전혀 생각안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꿈은 이미 어떤 事件으로 因하여 霧散된 後였으며, 또 그와 같은 計劃을 繼續 품고 있는 限 自身の Weimar에 있어서의 位置마저 위태롭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었다.

이 事件이란 그 해 5월에 Goethe와 Klopstock 사이에 있었던 편지 다툼이었다. 言爭의 原因은 Goethe가 當代 最高의 名聲을 누리며 獨逸文學界에 君臨하던 Klopstock의 門下生中の 한 사람인 Friedrich L. von Stolberg를 侍從官의 資格으로 Weimar로 招致해서 그들의 世界에 끌어 들일려고 한 데 있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젊은 天才作家들의 방자한 言動에 좋지 않는 感情을 품고 있던 Klopstock는 勿失好機라는 듯이 이 機會에 그들의 放從에 썩기를 박을 셈으로 斷然 挑戰狀을 던졌던 것이다. 이 事件을 契期로 해서 Weimar의 領主 Karl August公도 Goethe에게 臣下로서 보다는 젊은 친구로서 지나친 特惠를 베푼다는 理由로 Klopstock의 攻擊을 받았다. 賢명한 君主로 알려진 August公은 Goethe를 保護할 뿐 아니라 Weimar에 잡아두기 爲한 名分을 만들기 爲해서, 그 事件 前까지만 하더라도 一定한 官職을 갖지 못했던 Goethe에게 樞密公使(Geheimer Legationsrat)라는 公職을 내린다.

Goethe는 이런 事件을 契期로 Weimar에서의 自身の 位置가 確固치 않다는 事實에 強한 精神의 衝擊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實際로 새로운 官職이 要求하는 精力과 時間에 쫓겨서 Klinger와는 자주 만나 주지 못할 안했다.

그러나 Klinger는 自己나름대로 才致있게 大公母 Amalia의 歡心을 사고 皇太子 Konstantin과 가까이 사귀므로써 自身の 將來에 대한 設計를 펼쳐 불려고 試圖를 해 본다.²⁰⁾

IV

여기서는 Weimar에서의 Klinger의 生活을 焦點에다 놓고 <Sturm und Drang>의 成立過

19) Richard Friedenthal: Goethe, Sein Leben und seine Zeit

20) Richard Benz: Die Zeit der deutschen Klassik S. 415.

程을 그려보기로 한다.²¹⁾

Weimar에서의 Klinger는 Lenz와 같이 旅館 Zur Post에서 한 房에 묵고 있었다. 그는 到着時만 해도 그 곳에서 가장 비싼 旅館에서 旅裝을 풀지만 일들이 最初의 計劃대로 進行되지 않자 經濟的인 理由 때문에 Lenz가 投宿하고 있던 Zur Post로 옮겨 같은 房을 들어서 使用하게 되었다. 넉넉지 않는 旅費에도 不拘하고 가장 비싼 旅館에 들었다는 事實은, 市民의 生活圈에서 貴族들의 生活圈으로 옮겨와서, 그 곳에서 새 生活의 뿌리를 내릴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親舊 Goethe의 體面을 考慮한 處事이기도 했지만, 豪放한 Klinger의 一面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Lenz와 잘 比較되지만 Klinger는 이런 側面에서 보더라도 Lenz보다는 社會人으로서 相當히 成熟한 편이었다고 評價된다. 그러나 平民의 出身이면서도 좋은 허위대에다가 運動競技에는 거의 萬能이며, 거기다 自由奔放한 그의 性格은 Weimar 宮中の 貴族들이나 그 곳을 出入하는 官吏들의 嫉妬와 茅蔑의 對象이 되었으며, 따라서 그들과의 交際關係는 반드시 順調롭기만 한 것도 아니었다.

Klinger는 일단 Weimar에서의 定着이 不可能함을 豫見하자, Wieland와 大公母 Amalia의 권유로 軍隊에 投身할 생각을 갖게 된다. Klinger의 體軀나 性格 등이 軍人으로서 適合했다는 點과, 市民의 下層에서 出發한 그에게 별도로 다른 길이 없었다는 點 등이 그가 그런 決心을 하게 된 背景일 것이다.

決心을 한 그는 여기에 대한 準備로서 Knebel大尉로부터 兵法 戰術 銃劍術等 將校로서의 基礎教育을 熱心히 個人教授 받는다. Klinger의 속셈은 將次 軍에 入隊할 경우에 最少限 將校의 자리를 얻겠다는 것이었다. Klinger의 아버지가 Frankfurt市 所屬의 一個兵卒이었다는 事實을 감안할 때 Klinger의 野心은 컸던 것이다. 그러나 公로롭게도 當時의 Preußen은 平和時여서 그가 希冀했던 Preußen의 陸軍에서는 將校의 新規採用이 없었고, 또 있었다고 치더라도 當時의 慣例로서는 將校의 新規採用에는 原則적으로 貴族의 子弟들에게 優先權이 주어지던 터라 Klinger와 같은 平民의 出身에게 어느 程度의 可能性이 있었는지 疑問視 된다. 一次的으로 Preußen軍隊에 들어간다는 計劃이 挫折되자, 그의 作品 <Sturm und Drang>의 主人公인 Wild와는 正反對로 美國獨立戰爭의 獨立軍을 鎮壓하기 爲해서 投入되는 英國軍側의 獨逸傭兵隊의 將校로 採用되기까지를 希冀하나 이것도 如意치 못하다. 手段方法을 가리지 않고 出世의 길을 摸索하던 Klinger는 다시 되풀이 되는 말이지만, 市民의 世紀였던 18世紀에 있어서 아직도 自覺에 到達치 못했던 狀態에서 分散의 으로나마 악착같이 上昇運動을 벌리던 獨逸市民階級の 典型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에서 貴族政治의 壓制下에 正義의 憤怒를 터뜨리던 그들이었지만 實際의 行動面에서는 自己들의 理念과는 正反對의 길을 擇할 수 있었다는 點에 Sturm und Drang運動의 主役들의 人間的인 未熟성과

21) F. J. Schneider: Die deutsche Dichtung der Geniezeit, S. 233~236

F. M. Klinger, Sturm und Drang, hrsg. v. J. U. Fechner, Dokumente zur Entstehungs- und Wirkungsgeschichte und Nachwort.

精神分裂症勢를 엿볼 수 있어 興味롭다고 느껴진다. 이뿐만 아니라 Klinger에게 好意를 보이며 그의 軍隊 길을 周旋하려고 나섰던 Weimar의 大公母 Anna Amalia는 當時의 Braunschweig 大公의 딸이기도 했는데, 이 때는 美國獨立戰爭 때 英國側에 獨逸傭兵을 팔아넘김으로써 巨金을 着服한 領主들中的 한 사람이었다. 이와같은 史實은 同時代에 살았던 Schiller의 <Kabale und Liebe> 에서도 Lessing의 <Miss Sarasampson>에서도 그 反映을 엿볼 수 있고, 傭兵賣渡를 批判한 罪로 아무런 裁判의 節次도 밝지않은 채 10年間的 獄苦를 겪었던 Schubart等 그 例가 한두가지가 아니다.²²⁾ Klinger가 傭兵隊에 入隊하고자 한 것은 當時로서는 決코 드문 일이 아니었다. 그 좋은 例로서 Klinger와 Goethe의 同人의 한 사람이었던 Lindau少領도 美國獨立戰에 傭兵隊將校로 出戰하여 첫 會戰에서의 戰功을 편지로 알려 오고 있었다.²³⁾

勿論 이와같은 軍人生活에 대한 그의 熱望은 나중에 露國軍隊로 連結이 되지만, 여러차례의 試圖가 失敗로 돌아가고 經濟的으로도 점차 어려워져가자 Klinger처럼 膽大한 사람도 Weimar을 찾아볼 때의 意氣는 다 사라지고 唐惶하기 始作한다. Klinger와는 目的은 달랐지만 같은 出世의 꿈을 품고 Weimar로 왔던 Lenz가 이곳에서의 挫折을 契機로 끝끝내 떠나 못하고 精神異常者로서 悲慘한 一生을 마친 것을 볼 때, Klinger 亦是 一身上의 一大危期에 處해 있었던 것이다. 이런 狀況 속에서 短時日에 쓰여졌던 <Sturm und Drang>이 最初에 <Wirrwarr>이라고 불리웠던 것은 決코 偶然이 아니라, 그가 當時 놓여 있었던 精神的・物質的 狀況과 一致되는 것이라 하겠고, 이 作品이 Klinger의 數 많은 作品 가운데서 決코 最高의 傑作品도 아닌데, 그가 그렇게도 愛着을 느꼈던 理由는 心理的으로 充分히 理解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우리들 人間은 例外없이, 가장 어려운 時節에 사친 親舊에게 가장 알뜰한 友情을 느낄 수 있듯이, 作家 亦是 逆境 속에서 製作된 作品에 가장 많은 愛着을 느끼기 때문이다.²⁴⁾

軍隊의 길이 잘 열리지 않자 Klinger는 비록 한 때나마 俳優로서의 人生을 志望해 보기도 하는데 이것 亦是 이 어려운 고비에서 풀려나기 爲한 苦肉之策이었다. Klinger가 軍隊에 採用되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동안에, 좁은 Weimar의 社交界에서는 前年에 Hamburg의 懸賞募集에서 一等을 차지한 <Die Zwillinge>의 臺本이 널리 퍼져서, Klinger에게 後援을 아끼지않던 大公母 Amalia에 依해서 그 해 늦가을에 宮中을 中心으로 한 演劇愛護家들을 爲해서 그 上演이 決定된다. 이런 일들을 契期로 Wieland도 Klinger의 演劇에 대한 素質을 認定하고자 Mannheim의 選帝侯 Karl Theodor이 매마칠 創立하려던 王室劇團에 다가 入團申請을 내보도록 권유를 한다.

22) C. D. Schubart에 대해서는 E. Ermatinger: Deutsche Dichter 1750~1900, S.137-148.

23) F. M. Klinger, Sturm und Drang. hrsg. v. J. U. Fechner, Nachwort.

24) Klinger自身도 <Die Zwillinge>를 自身の 成功한 作品으로 꼽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Klinger는 조용히 기다리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戀聞을 퍼뜨리고 다니는 데, Weimar에서는 특히 Caroline라는 輕薄한 女性과 關係를 갖는 한편, 旅行途中에 사귀게 된 Eisenach의 Emilie라는 女子와도 尋常치않는 交際를 繼續한다. 이와 같은 그의 行動은 거의 같은 처지에서 같은 失手로 Weimar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Lenz처럼, 그가 Weimar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게 된 決定的인 原因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그의 行動을 그의 편에 서서 볼 때에 전혀 正當化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Klinger의 打算的 現實的 性格은 可及的 適當한 程度의 情熱만을 이와 같은 戀愛장난에 쏟으므로써 깊이 빠져 들어가지 안팎음이 當時의 그의 書信 속에서 밝혀지고 있다.²⁵⁾

우리들은 獨逸文學史上 古典·浪漫의 時期에 周邊世界의 沒理解와 重壓에 깔려서 破滅한 詩人으로 Kleist, Holderlin等을 알고 있지만, Lenz도 이들과 같은 類型에 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Klinger의 경우는 이들과는 對照的으로 自身の 危機를 克服하기 爲해서 오히려 周邊의 世界를 逆利用한 感이 없지도 않다. 萬一 Klinger도 外部에서 오는 挫折感에 依해서 自身の 情熱의 出口을 遮斷 當렸을 때 그 情熱을 그런 俗된 方法으로써라도 發散시키지 못했다면, 그도 Werther와 같은 運命을 되풀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는 그의 타고 난 性格의 탓이겠지만 그는 俗된 意味에서 賢明하게 이 危機를 넘겼다고 하겠다. 앞서 든 外에도 Schleiermacher의 女동생 Henriette, Albertine von Grün, 그리고 姓名未詳이나 Goethe도 한 때 好感을 보였던 것으로 傳해지는 Offenbach의 女人等이 그와 가까운 關係에 있었다고 믿어지는 女子들이다. Klinger는 어느 편지에서 自身の 女子關係와 關聯해서 「貴族家門의 處女들이나 婦人들과는 잘 사귄 수가 있다.」고 털어놓고 있다.²⁶⁾

職場을 얻기 爲해서 Weimar을 떠나 Gotha에도 몇차례 다니오지만, 거기서도 女子關係를 빼고나면, 別般 다른 成果라고는 한 두명의 친구를 사귄 程度였다. 얼마 안되는 旅費는 점점 줄어들었다. 아무도 그의 生活問題를 걱정해 주는 사람은 없었다. 膽大하고 明朗한 性格의 Klinger였지만 이젠 焦燥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는 다시 <Die Zwillinge>에서 얻은 名聲을 밀어 올려서 劇作家로서의 地位를 確固히 굳히고 싶은 마음과, 당장 金錢에 窮해 있으니 財政的인 理由에서 急하게 戯曲 한편을 完成하는데, 이것이 <Sturm und Drang>의 誕生이었다. Klinger는 그 때의 創作動機를 이미 引用한 바 있는 1818년에 Goethe에게 보낸 편지에서 「Drang nach Tätigkeit」라고 表現하고 있다.²⁷⁾

그리고 이 作品이 Weimar에서 처음으로 着手되었다는 事實도 Wieland가 Merck에게 보낸 편지에 밝혀져 있다. 따라서 이 作品은 成立過程에서 볼때, 創作上의 強行軍이었다고 짐작된다.

25) F M Klinger, Sturm und Drang, hrsg v. J. U. Fechner, Nachwort. S 153

26) ibid Nachwort S. 153

27) ibid S 153.

Goethe에게 보낸 Klinger의 1814年 5月 26日 편지, Max Rieger, Klinger in der Reife. Briefbuch.

Klinger는 <Sturm und Drang>을 Weimar의 한가운데서 터뜨림으로써 두 가지의 效果를 노린 것 같다. 첫 째는 自身の 文學的 力量에 대한 意識的인 示威였을 것이고, 둘째는 Weimar의 人士들 눈앞에서 그것도 短時日에 奇拔한 創作을 함으로써 自身이 그 社會에서 正當한 評價와 認定을 받고 있지 못한데 대한 代償行爲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言及한 바 있듯이, 어떤 手段方法을 써서라도 成功을 해야겠다는 Klinger의 이와 같은 生活姿勢는, 일단 모든 過去와 斷切하고 새 生活의 基盤을 構築하기에 餘念이 없는 Goethe에게는 은근히 不快感과 不安感마저도 안겨다 주었다. 그 結果는 마침내 두 사람의 友情에 금을 가져 오게 된 것이다. Goethe는 Klinger에 대한 自己의 괴로운 心情을 그 해 9月 16日字로 Lavater와 Merck에게 同時에 낸 편지에서 하소연하고 있다.

Klinger는 살속에 박힌 가시 같아서 언젠가는 뚫아서 튀어 나갈 것이다.

이 글귀는 Goethe가 自己에 대한 關係에서 Klinger의 生活態度를 非難한 것은 勿論이거니와, 自身과는 달리 Klinger가 上流社會 속에 同化하지 못하고 周邊의 사람들에게 異質感을 주고 있다는 데 대한 하소연이다.²⁸⁾

Klinger는 이렇게 해서 誕生한 新作을 Gotha에서 사귀게 되었던 Kaufmann에게 가져 가서 거이 強要하다 싶이해서 朗讀을 하고 그의 評을 請한다. 어떻게 해서라도 自身の 能力을 認定 받아야겠다는 執念이 Kaufmann의 役割에 期待를 걸게 했던 것 같다. 當時 23歲 밖에 안되던 Kaufmann은 所謂 天才青年들의 思想에 同調하면서, 그들을 支援함을 宗教的 使命이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北方의 魔人으로 불리웠던 Hamann에 對比해서 南方의 魔人이란 別稱을 가졌던 Lavater의 弟子로, 이미 말한 바 있는 Rousseau의 自然主義 哲學과 Lavater의 <天才論>에 心醉되어서, 自身을 第二의 Petrus로 自處하고, 神의 使徒 Petrus와 같이 참다운 人間들을 찾아 다닌다고 했다. 그러나 實際 그의 行動과 態度에는 오히려 Rousseau의 말과는 逆行하는 不自然스러운 데가 많았다. 나중에 그는 詐欺師였음이 밝혀지고, Goethe와 Klinger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도 그의 離間策에 依한 것이었음이 判明되었다. 그래서 그는 흔히들 그의 稱號처럼 이름 앞에 붙어다니는 天才의 使徒(Genieapostel), 神의 探索犬(Gottesspürhund), 힘의 使徒(Kraftapostel) 등의 別名으로 揶揄조로 불리웠다.

Klinger의 부탁을 받은 Kaufmann은 內心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 몰라도, 겉으로는 Klinger에게 好感과 理解로써 對해 주었다. 다만 Klinger가 그에게 朗讀해 보였던 <Wirrwarr>의 名稱에 대해서만은 異議를 내세워 自己의 主張대로 原名보다 훨씬 抽象的이고 戰鬪的인 <Sturm und Drang>으로 改稱케 했었다.

Kaufmann과의 交際를 契機로 Klinger는 다시 自信을 回復한 듯이 活潑하게 Goethe,

28) Lavater에게 보낸 Goethe의 1776年 9月 16日字 편지

Weimar, Dessau사이를 往來하면서 즐거운 한 때를 보낸다. Kaufmann은 간 곳마다 Klinger를 稱讚하고 다니고, Klinger는 世人의 驚歎을 받던 Kaufmann을 따라다니는 것을 허뭇하게 느꼈다.

그러나 그의 就職問題에는 別般 進展이 없었다. 大公母 Amalia와 Wieland는 말할 것도 없고, Kaufmann까지도 Klinger를 露國의 貴族家門의 家庭教師로라도 알선하려고 애써보지만 그렇게 쉽사리 問題는 解決되지 않았다. Klinger가 빌려온 돈은 벌써 바닥이 나고, 그는 經濟的으로 破局直前에 있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Weimar의 社會에서 自身の 體面을 잃는 것이었다. 한 편 Goethe는 Klinger의 이런 困境을 外面하고 冷情하게 대했다. 反面에 Kaufmann에 대해서는 지나칠 程度의 懇切과 好意를 보였다. 이와 같은 差別待遇에 더 拍車를 加하게 한 것이 後日에 가서 Kaufmann의 中傷에 依한 것이었다는 點은 이미 앞서 暗示했다. Klinger는 이 일을 平生 잊을 수가 없었다.

이런 次에 雲上加霜으로 故鄉에서는 母親이 病床에 눕게 되었다는 消息이 들어 온다. 男便을 여의고 난 後 오랜 歲月을 家計를 爲해서 洗濯婦 일을 해온 그녀는 이제 痛風症때문에 팔을 못쓸 지경에 이르렀다. 家族들의 生計는 다시 威脅을 받게 되었다. 그녀의 唯一한 希望은 아들이 하루 빨리 安定된 報酬의 職場을 얻는 것이었다. Klinger가 大學을 中斷한 것도 이런 期待에서 그녀는 좋게만 보고 있었다.

Klinger에게는 이제 選擇의 餘地가 없었다. 1776年 10月 初旬에 Klinger는 Weimar을 등지고 Leipzig로 가서 Abel Seyler의 劇團에 專屬劇作家로 들어간다. Abel Seyler는 Lessing이 專屬演劇評論家로 있던 Hamburg 國立劇場의 經營主中の 한 사람이었으나 Hamburg劇場이 失敗로 돌아가자, 自身の 演劇에 대한 興味를 繼續 살리기 爲해서 移動劇團을 創設 Hannover, Wetzler, Weimar, Dresden等地를 巡回公演하고 다녔다.²⁹⁾

Klinger는 Seyler가 提案한 年俸 500 Reichstaler에 宿食提供의 契約條件을 受諾한다. Seyler가 Klinger를 採用한 것은 決코 Weimar에서의 新作<Sturm und Drang> 때문이 아니라 前년에 入賞했던 <Die Zwillinge>의 作家로서의 人氣를 利用하겠다는 속셈과 將來가 約束되는 이 新進家를 獨占하겠다는 意圖에서 였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 Seyler 劇團이 Klinger와 더불어 사드린 첫번째 公演 作品은 <Sturm und Drang>이 였었다.

<Sturm und Drang>의 初演이 언제였는지는 確實치 않으나, Klinger가 Seyler 劇團에 入團한 다음 달인 1776年 10월에 劇團의 常設地인 Dresden으로 推測된다.

그러나 確實한 記錄에 남아 있는 것은, 다음해 1777年 4月 1일에 Leipzig에서 公演되었다는 記錄이다.³⁰⁾

29) Werner Kließ: Sturm und Drang S.130

30) F. M. Klinger: Sturm und Drang, hrsg. v. J. U. Fechner, Nachwort u. Dokumente zur Entstehungs- und Wirkungsgeschichte S.77.

V

이야기는 18世紀 中葉 英國의 London을 背景으로 始作된다. London의 王室에 奉職하는 Bushy와 Berkley의 두 貴族은 서로 의좋게 지내면서도 相對편의 出世에 嫉妬를 느끼고 있는 사이이다.

Berkley卿은 性格이 剛直하고 急하다. 그는 王室에서 相當한 벼슬도 하고 財産도 남부럽지 않는 程度다. 至極히 사랑하는 아내와 子女가 있어 매우 幸福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에게는 家庭의 幸福이 모든 幸福의 根源으로 생각될 程度로 그는 家庭의인 人間이다. 두 子女中 큰 아들의 이름은 Harry이고 性格은 아버지를 많이 닮아 剛直하고 每事에 果敢하며 固執이 있다.

Berkley卿은 老後에 自己 몸을 依託할 子息으로서 Harry에 대한 期待가 크다. 그는 그것을 큰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 다른 기쁨은 Harry의 여동생 Karoline를 Bushy卿의 아들 Karl(여기서는 Wild라는 變名으로 干先 登場한다.)과 짝지어서 幸福한 來日을 갖도록 해주는 일이다. 未來의 사위감인 同時에 Karoline의 愛人인 Karl도 Harry 못지않게 씩씩하고 튼튼한 젊은이다. 말하자면 Harry와 Karl은 Sturm und Drang의 主役들이 理想像으로 삼았던 Kraftgenie에 해당되는 großer Kerl들이다.

그런데 이 幸福의 꿈은 어느날 하루밤 사이에 산산조각이 되고 만다. 어느날 밤에 Berkley一家가 깊이 잠든 틈을 타서 敵이 陰謀를 꾸며 奇襲攻擊을 가해은 것이다. Berkley卿이 날이 새어서 失神狀態에서 깨어 보니 아내와 아들 Harry는 간 곳이 없고, 어린 딸 Karoline만이 自己의 목을 껴안고서 이마에서 식은 땀을 씻어주고 있을 뿐이다. 바로 그 순간 自己 夫人이 죽었다는 전갈과, 잇따라 아들 Harry가 失蹤되었음이 傳해진다. Berkley의 슬픔과 絶望은 極度에 達한다. 이런 不幸속에서도 Karoline가 살아 남았다는 것이 그가 살아갈 수 있는 唯一한 希望이다.

그는 敵이 再次 攻擊해 올 것이 두려워 美大陸의 新世界로 건너 간다. 이곳에서 그는 비록 불편한 생활을 하지만 敵들의 迫害를 避해 다시 安慰을 되찾게 된다. 그러나 그는 뒤늦게 自身을 그렇게 내뺌기 위해서 陰謀를 꾸민 張本人이 親舊 Bushy 卿임을 알고 놀라움과 분노를 禁치 못한다.

往年의 富裕하고 安樂했던 時節에 比해서 지금은 초라하게, 失意 속에서 살아 가고 있는 Berkley 卿은 終日 카드집을 지으면서 消日을 하는데, 自身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은 지난날의 豪華롭던 生活, 사랑하던 아내, 悲慘한 現在의 處地, 背信한 親舊에 대한 복수等 꼬리를 물고 限이 없다. 딸 Karoline는 불쌍한 아버지를 憐樂으로 慰勞하려고 한다.

一般的으로 Klinger의 <Sturm und Drang>의 모티브를 Shakespeare의 Romeo and Juliet

의 그것에 比하는데, 거기서 悲劇의 前提가 되고 있는 兩家의 敵對關係가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設定된다.

그런데 한편 Bushy卿은 親舊인 Berkley 卿을 沒落시키므로써 더욱 幸福하게 되었으나 하면 그렇지가 않다. 無辜한 사람을 不幸하게 만든 代價로 自身도 같은 運命을 겪게 된다. 自身도 他人의 陰謀에 依해서 失脚한다. 이제 같은 悲運을 맞본 后에야 自身の 잘못을 悔우치고 옛 親舊와의 和解를 바란다. 그는 아들 Karl에게 어릴 적부터 사랑하던 사이였던 Karoline를 찾아나서도록 許諾한다. 自身도 이제 餘生이 얼마 남지않는 몸으로 Karoline의 아버지자 옛 親舊로, 지금은 원수가 되어버린 Berkley卿을 찾아 나선다. 그들은 數年 동안 坊坊曲曲을 찾아 헤매었으나 所期의 目的을 達成하지 못한다.

마침내 Karl은 自身の 마음을 달랠길 없어 新大陸 美國으로 건너가는 데 Karl의 아버지도 偶然의 一致로 美國으로 건너 가게 된다.

이렇게 해서 一幕一場의 幕이 오르던 美國의 어느 旅館房을 背景으로 旅裝차림의 Wild, La Feu, Blasius가 登場하다. 때도 바뀌어 美國獨立戰爭中이다.

Bushy卿의 아들 Karl은 Wild라는 變名으로 登場한다. 이름 그대로 性品이 거칠고 시끄럽고, 다만 요란스럽고 僻적되는 곳에서만이 活氣를 느낄 수 있다. 客地를 轉轉하는 동안에 性格이 사나워진 것이다. 따라서 주먹질 決鬪 戰爭의 騒音만이 그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 Wild는 自身の 所願을 이루지 못한데서 自暴自棄에 가까운 精神狀態에 있으며 愛人 Karoline를 찾아낸다는 꿈만을 한가닥 希望으로 삼고, 살기 싫은 삶을 억지로 끌어가고 있는 印象이다. Wild는 두 青年 La Feu와 Blasius를 두 마리의 개처럼 끌고 다닌다. 이 두 젊은이는 Wild앞에서는 服從外에 아무런 選擇의 餘地도 없다. Wild는 이 두 青年을 馬車에 태워서 急히 露國에서 스페인으로 끌고 간다. 그러나 期待와 달리 그곳에서도 戰爭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눈까지 꿈꿈 가려서 배에 실어 獨立戰爭의 한가운데에 있는 美國으로 건너 온 것이다. La Feu는 이름이 말해 주듯이 불 같은 想像力의 夢想家며 女性的이고 恒時 戀愛에 熱中한다. 그는 幻想속에서 살며 感受性이 너무 銳敏하기도 하다. 그의 想像力은 새까만 고딕式의 古屋을 妖精의 城으로 둔갑시킬 수도 있고, 처음 만난 老婆에게 戀情을 느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老婆의 주름살을 美의 曲線으로 想像할 수도 있다. 恒時 그는 幻像 속에서 살고 있는 爲人이다.

對照的으로 Blasius는 이름이 뜻하는 그대로 허풍선이다. 그는 말하자면 感覺을 지닌 機械 같은 人間이다. 그는 情性에 依해서만 살아 가는 로봇과 같은 人生으로 恒時 무뚝뚝하고 우울하기만 하다.

세 사람의 친구들이 各各 性格은 다르나 共通의인 點은 모두가 自身을 周邊世界에 適應시키지 못하는데서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세 사람의 性格은 Klinger의 Weimar에서의 體驗을 分光器로 해서 갈라져 나간 Klinger 自身の 性格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旅館에서 事件은 急進屢을 해서, Wild는 偶然히 房을 잘못 찾아 들어 꿈에도 잊지 못하던 Karoline를 만난다. 두 사람이 옛 情을 確認할려는 찰나에 Karoline의 아버지며 Bushy家를 저주하는 Berkley卿이 들어 온다.

Wild를 달로부터 紹介받는 Berkley卿은 Wild의 性品에는 끌리나 그의 얼굴이 어쩐지 자신의 怨讐 Bushy를 닮은 것같이 못마땅 하게 여긴다. Karoline는 萬一自己 아버지 Berkley卿이 Wild가 怨讐의 아들 Karl이던 事實을 알게 된다면 그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戰戰兢兢한다. 다시 찾은 幸福은 사라지고 事態는 悲劇으로 急轉할 기미를 보인다. 여기에 뜻밖에도 失蹤된 것으로 믿어졌던 Berkley卿의 아들 Harry가 석직한 船長 Boyet로 登場한다. Boyet 船長은 歐州에서 아무런 가담 없이 Wild를 쓰아 죽일려고 한 적이 있는 者다. 여기서도 Boyet는 Wild에게 決鬪를 要求한다. 決鬪는 Boyet의 가벼운 負傷으로 끝난다.

그런데 여기에 最後의 大團圓을 爲해서 奇跡이 생긴다. 船長 Boyet가 어느 暴風雨가 부는 밤에 죽일 意圖로 조각배에 실어서 버린 Bushy卿이 살아서 나타난 것이다. 이 事實은 Boyet船長의 使童인 黑人童子가 船長 Boyet를 속이고 빈 배만 띄워보내고 Bushy卿을 숨겨서 살려 주었다는 이야기를 Bushy卿의 아들 Wild에게 함으로 밝혀진다.

모든 誤解와 敵意는 살아지고 Bushy卿과 Berkley卿은 和解를 하고 Karoline와 Karl은 結合된다.³¹⁾

줄거리 속에 너무나도 偶然의 設定이 많아 荒唐無稽한 感이 없지도 않다. 그러나 여기에 登場하는 요란한 主人公들, 그들의 거침은 言動은 Sturm und Drang期の 氣分과 感情을 表現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된다.

VI

學問을 學問의 內面에서 볼 때 要求되는 두 가지 要點은 體系性和 徹底性이다. 이 두 가지 點을 놓고 우리 나라의 學界를 反省해 볼 때 아직은 學問의 歷史가 짧고 研究에 從事하는 人員의 不足으로 專門別의 體系의인 研究가 不可能한 形편에 있다. 獨文學의 경우만 하더라도 中世까지는 못가도 獨逸의 國民文學의 發生期에 해당되는 啓蒙主義時代부터라도 차분한 研究가 體系의으로 組織的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希望이다.

筆者가 獨文學史上 別般 重視되지도 않는 Klinger의 <Sturm und Drang>을 名稱부터 追跡한 理由가 여기에 있다. 우리의 周邊에는 알지 못한 事實들이 너무나도 알려진 事實처럼 取扱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主張을 한다고 해서 筆者가 대단한 研究를 하고 있다는 僭越한 생각을 추호도 갖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本人의 無能을 타하며 同學諸賢의 도움이 아쉬움을 말했

31) F. M. Klinger: Sturm und Drang hrsg. v. J. U. Fechner.

을 뿐이다.

둘째로 徹底性에 關聯시켜 볼 때 우리의 研究室 周邊에는 一次的 文獻이 너무 不足하다는 點이다. 作家의 作品은 勿論, 書翰集, 日記等 모두가 徹底한 研究를 爲해서 不可缺한 資料들이다. 비록 작은 글이라고는 하나 間接的인 引用과 考證은 괴롭고 언짢은 일이었다.

이 글에서 새로운 것이 있다면, <Sturm und Drang>의 名稱에 대해서 Kaufmann의 改稱說을 原典을 통해서 補充했다는 點이다. 그리고 Sturm und Drang運動을 單純한 文學運動의 視界를 넘어서 考察할 때 挫折된 市民革命의 變種이라고 볼 수 있고, 方向設定과 階層意識이 뚜렷하지는 못했지만, 運動의 主役들의 努力과 業績은 높이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뜻에서 Sturm und Drang의 보다 깊은 研究는 바람직한 것이며 Klinger도 再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이 이와 같은 方向으로 研究를 끌고 가는 실마리가 되어 주었으면 希望하는 바이다.

Texte

- 1) Deutsche National-Literatur Bd. 79 Sturmer und Dränger 1 hrsg. v. A. Sauer, Berlin u. Stuttgart.
- 2) Sturm und Drang, Dramatische Schriften Bd. II, Plan u. Auswahl v. Erich Loewenthal u. Lambert Schneider, Heidelberg, 1963.
- 3) Sturm und Drang, Schauspiel, Mit einem Anhang zur Entstehungs- und Wirkungsgeschichte, hrsg. v. Jörg-Ulrich Fechner, Stuttgart, 1970.

Sekundärliteratur

- 1) E. Ermatinger, Deutsche Dichter 1750—1900, Frankfurt/Main. Bonn, 1961.
- 2) R. Benz, Die Zeit der deutschen Klassik, Stuttgart, 1953.
- 3) R. Pascal, Der Sturm und Drang, Stuttgart, 1963.
- 4) F. J. Schneider, Die deutsche Dichtung der Geniezeit, Stuttgart, 1952.
- 5) H. A. Korff, Geist der Goethezeit Bd. I, Frankfurt, 1914-1954.
- 6) W. Kließ, Sturm und Drang, Velber b. Hannover, 1975.
- 7) R. Grimm(Hrsg.), Deutsche Dramentheorien Bd. I, Frankfurt/Main, 1973.
- 8) H. Knudsen, Deutshe Theatergeschichte, Stuttgart, 1970.
- 9) S. Sudhof, Von der Aufklärung zur Romantik, Berlin, 1973.
- 10) E. Friedell, Aufklärung und Revolution, Munchen, 1961.
- 11) A. Hauser, Sozialgeschichte der Kunst und Literatur, München, 1973.

- 12) R. Friedenthal, Goethe, München, 1963.
- 13) E. Dosenheimer, Das deutsche soziale Drama von Lessing bis Sternheim, Darmstadt 1967.
- 14) D. v. Abbé, Goethe, Plymouth, 1972.
- 15) W. Rose, From Goethe to Byron, London, 1924.
- 16) H. de Boor u. R. Newald, Geschichte der deutschen Literatur. Bd. 6/1, München 1957.
- 17) F. Martini, Deutsche Literaturgeschichte, Stuttgart, 1961.
- 18) A. Grabert, Geschichte der deutschen Literatur, München, 1961.

Über Klingers "Sturm und Drang"

Ki-Tai Chun

Im allgemeinen ist bekannt, daß Klingers "Sturm und Drang", das im Jahre 1776 in Weimar veröffentlicht wurde, der gleichnamigen literarischen Bewegung den Namen gegeben hat. In der Literaturgeschichte einer Nation ist aber sehr selten, daß der Titel eines zeitgenössischen Werkes als Bezeichnung der entsprechenden Literaturepoche verwendet wird. Dazu mußte es einen dementsprechenden Grund geben.

Obwohl Klinger neben Goethe und Lenz vor allen zu den Hauptfiguren der Bewegung zählt, sind sein "Mensch" und das Werk "Sturm und Drang" gewöhnlich nicht bekannt. So wird oft im Studentenkreis die Frage gestellt, warum gerade ein so unbedeutendes Werk von einem solchen unwichtigen Dichter wie Klinger der enorm bedeutsamen Literaturepoche, die allgemein Geniezeit genannt wird und zum ersten Mal die deutsche Nationalliteratur im echten Sinne in die Wege geleitet hat, den Namen gegeben hat.

Die vorliegende Arbeit versucht, auf die Frage eine Antwort zu geben. In diesem Sinne ist sie eine aufklärende. Der Autor hat sich dabei bemüht, besonders folgende Punkte hervorzuheben.

Erstens: Wie die Benennung, "Sturm und Drang", zustande kam, wird nach Briefen von Klinger untersucht. Und die allgemein anerkannte Ansicht, daß der Urtitel des Werkes, Wirrwarr, von dem Schweizer Kauffmann umbenannt worden sei, wird dadurch ergänzt, zu zeigen, daß Kauffmann den neuen Titel, Sturm und Drang, jeweils aus der ersten Szene des ersten Aktes und aus der letzten Szene des letzten Aktes entnommen hat.

Zweitens: Klinger wird als das Symbol des aufwärtstrebenden deutschen Bürgertums, das bis dahin noch nicht zur bürgerlichen Revolution gereift war, dargestellt. Der Autor betrachtet die literarische Bewegung der Geniezeit als eine Abart der westlichen bürgerlichen Revolution.

Drittens: Der Autor hat das Werk, das heute kaum noch gelesen wird, gründlich gelesen und eine Inhaltsangabe des Stückes gegeben das dazu verhelfen soll, daß man nicht mehr zu Unrecht das Stück mit "Romeo and Juliet" von Shakespeare vergleicht, wie es in der Darstellung der deutschen Literaturgeschichte üblich ist.